

함께 열어나가는 미래

# 보잉과 대한민국




보잉과 대한민국의 오랜 파트너십의 출발점은 1948년 보잉의 DC-3 기종을 한국의 최초 상용기로 도입한 시점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어느덧 보잉의 최대 해외 시장 반열에 올랐습니다. 보잉은 상용 및 방위 부문의 든든한 파트너로 한국의 항공우주 산업 성장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에릭 존 (Eric John) 사장이 이끌고 있는 보잉코리아는 1988년 설립되었으며, 오늘날 200여명의 직원이 서울, 인천, 부산, 김포, 서산, 대구 그리고 사천 지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헌신과 협력

 <p><b>1948</b> DC-3 기종으로 한국 첫 진출</p>	 <p><b>6,000+</b> 보잉이 한국에서 직간접적으로 창출하는 연간 일자리 수</p>	 <p><b>145,000</b> 국내 항공사의 보잉 항공기를 이용하는 일일 여객 수</p>
 <p><b>370+</b> 한국이 운용하는 보잉 상용기 및 군용기 수</p>	 <p><b>48+</b> 보잉의 국내 협력업체 수</p>	 <p><b>\$5B+</b> 지난 10년간 보잉이 이행한 절충교역 규모</p>

## 투자

보잉은 투자를 통해 국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양측 모두를 위한 혁신을 도모하며 한국의 항공우주 산업 성장에 기여 하고 있습니다.

 <p><b>\$3.5B+</b> 지난 10년간 보잉이 한국에 투자한 금액</p>	 <p><b>\$400M+</b> 보잉의 연간 한국 투자 규모 (2018년)</p>	 <p><b>\$6.4B+</b> 지난 5년간 보잉의 한국 R&amp;D 투자 규모</p>
--	---	---

## 지역사회 연계 활동

보잉은 한국에서 지역사회 파트너들과 협업하여 진행하는 교육, 환경 및 리더십 트레이닝 활동을 매우 중시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p><b>\$4.5M+</b> 지난 10년간 지역사회 및 학계 협력 사업에 투자한 규모</p>	 <p><b>\$1M+</b> 2012년부터 수여한 장학금 규모</p>	 <p><b>13</b> 협력 기관 수</p>
---	--	--

## 보잉의 국내 사업 활동

### 산업 발전의 동반자

보잉은 지난 10년간 한국에 35억 달러를 투자하며 한국의 항공우주 산업 성장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왔습니다. 보잉은 2018년 한 해에만 48곳이 넘는 한국 제품 및 서비스 협력업체에 4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으며, 이로써 한국은 보잉의 최대 파트너 국가 중 하나라는 입지를 더욱 공고히 다졌습니다.

대한항공 항공우주사업본부(KAL-ASD)는 1976년 출범을 시작으로 보잉과 오랜 협력관계를 쌓아왔습니다. KAL-ASD는 보잉과 다양한 군용기를 공동 생산하고 이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현재는 보잉 상용기 기종인 787, 747-8 및 737 모델의 부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1999년 설립된 이후 보잉의 주요 공급업체로 자리매김했습니다. KAI는 보잉 상용기와 더불어 F-15, P-8 그리고 A-10 날개 교체 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군용기 프로그램의 핵심적인 부품 공급업체입니다. 또한 KAI는 737 기반 공중조기경보통제기인 피스아이(Peace Eye)의 대규모 개조 작업을 담당했습니다.

보잉은 한국의 C3N(지휘, 통제, 통신 및 네트워크) 분야 선두주자인 휴니드테크놀러지스의 소액주주입니다. 양사는 최첨단 군용기 항공전자 장비, 전기 부품 및 관련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며, 성장 시장인 글로벌 항공전자 산업에서 휴니드가 유리한 입지를 점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 보잉 상용기 부문 (Boeing Commercial Airplanes)

보잉은 지난 70년간 한국의 상용 항공 산업 확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에 1948년 최초로 도입된 보잉 항공기는 더글라스 DC-3 기종이었습니다. 이후 한국의 국적기 항공사인 대한항공이 1969년 보잉 707를 처음 도입하면서 보잉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오늘날 대한항공은 글로벌 선도 항공사인 동시에 화물 수송 사업 역시 활발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보잉 화물기를 운항하며 최대 규모의 북미-아시아 노선 화물 수송 업체로 자리잡았습니다.

한국의 2대 항공사인 아시아나항공은 1988년 설립과 동시에 첫 비행기로 선택한 보잉 737-400 항공기를 인도받았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1989년 첫 비행을 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화려한 수상 경력을 자랑합니다.

한국 최초의 저비용항공사인 제주항공은 오로지 보잉 항공기로만 구성된 기단을 운항합니다. 상용 항공 시장의 가파른 성장세에 힘입어 제주항공은 단숨에 대한민국 3대 항공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진에어, 티웨이항공 그리고 이스타항공 역시 보잉 항공기로만 구성된 기단을 운용중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한국의 항공 여행 시장 확장을 주도할 것입니다.

### 보잉 디펜스, 우주, 안보 부문 (Boeing Defense, Space & Security)

보잉의 더글라스 AD 스카이라이더(Douglas AD Skyraiders) 폭격기가 한국 전쟁에 참전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보잉은 한국의 방위 및 항공우주 부문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보잉이 인수한 맥도넬 더글라스(McDonnell Douglas)가 1969년 한국군에 F-4 팬텀(Phantom)을 인도했습니다.

오늘날 한국은 세계에서 네 번째로 가장 많은 CH-47 치누크(Chinook) 헬리콥터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군은 AH-64E 아파치(Apache) 공격헬기를 도입하여 지상과 해안 지역 위협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 상용기 부문



#### 대한항공:

- 747 12 대 (747-400 2 대, 747-8 10 대)
- 777 43 대 (777-200ER 14 대, 777-300ER 25 대, 777-300 4 대)
- 737 31 대 (737-800 9 대, 737-900 16 대, 737-900ER 6 대)
- 787-9 10 대
- 747-400F 4 대
- 747-8F 7 대
- 777F 12 대

#### 아시아나항공:

- 767-300 6 대
- 777-200ER 9 대
- 747-400 2 대
- 747-400F 11 대
- 767-300F 1 대

#### 이스타항공:

- 737-800 17 대
- 737-900 2 대
- 737 MAX8 2 대

보잉은 한국군에 F-15K 전투기를 60대 인도했으며 해당 기종의 서비스 수명은 2040년 이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보잉은 합리적인 비용의 장기 성과기반군수지원(PBL) 계약을 통해 해당 전투기의 임무 가용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보잉 글로벌 서비스 부문 (Boeing Global Services)

글로벌 서비스 부문은 보잉의 자원, 혁신 및 투자 역량을 통합하여 디펜스 및 상용기 부문 고객사가 제품의 수명 주기 동안 항공기 운용 최적화 및 운용 비용 절감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글로벌 서비스 부문은 한국 시장의 핵심적 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다음 4가지 영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 **공급망:** 글로벌 서비스 부문은 분야 최고 수준의 항공우주 공급망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사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KLMX Inc.를 인수하면서 보잉 유통 서비스(Boeing Distribution Services)는 고객사에게 더욱 효율적이며 확장된 공급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엔지니어링, 개조 및 유지 보수:** 글로벌 서비스 부문은 제조업체와 상관없이 모든 항공기 제품을 변환, 유지 및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잉은 PBL 계약을 통해 한국 군용기 유지 보수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디지털 솔루션 & 애널리틱스:** 보잉 디지털 솔루션의 기반이 되는 보잉 애널리틱스(Boeing AnalytX)는 기초 데이터를 토대로 모든 비행 단계에 걸쳐서 효율성 제고, 자원 및 비용 절감 달성을 가능케 하는 다수의 소프트웨어 및 컨설팅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례로 대한항공이 도입한 항공기 건강 관리 솔루션(Airplane Health Management)은 예상치 못하게 비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해줍니다.
- **교육 및 전문 서비스:** 보잉은 세계 최고 수준의 조종사 및 정비사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며 국내 비행 훈련 분야를 이끌고 있습니다. 글로벌 서비스 부문은 인천 소재 대한항공 운항훈련센터에서 대한항공 및 진에어를 대상으로 운항 훈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보잉한국기술연구센터 (Boeing Korea Engineering & Technology Center)

보잉한국기술연구센터(BKETC)는 보잉이 한국에서 이룬 초고속 성장의 결실입니다. 보잉은 2019년 BKETC 설립을 통해서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의 전자, 디스플레이 및 네트워크 기술을 보잉 제품 및 프로세스에 접목하는 연구를 개시했습니다. BKETC는 글로벌 우수 기업들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항공전자, 데이터 애널리틱스, 커넥티드 캐빈, 스마트 공장 및 자율 비행 기술 분야 연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 디펜스 부문



- 치누크 42 대
- 아파치 36 대
- F-15K 60 대
- AEW&C 피스아이 4 대

## 파트너십의 역사

1948

대한국민항공사(대한항공의 전신) 한국 최초 보잉 항공기인 더글라스 DC-3 인도받음

1967

대한항공의 첫 제트 여객기인 더글라스 DC-9 인도받음

1972

대한항공 첫 747 인도받음

1987

대한민국 육군의 첫 CH-47D 치누크 수송 헬리콥터 인도받음

1988

보잉코리아 설립, 아시아나항공의 첫 항공기로 737을 도입

2005

대한민국 공군의 첫 F-15K 전투기를 인도받음

2011

대한민국 공군의 첫 공중조기경보통제기 피스아이를 인도받음

2016

대한민국 육군의 첫 AH-64E 아파치 공격 헬기를 인도받음

2017

대한항공의 첫 787 인도받음

2019

보잉한국기술연구센터 설립